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도자료

(배포) 2018. 4. 3(화)

*** 즉시 사용**

담당

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

감사담당관 이병우, 사무관 이형철
(044-200-2840, 2844)

총리실 자체감사 결과, '금품 수수' 비위 공무원 엄정조치
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물품구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(8천여만원, '12년부터 6년간)한 7급 공무원 ○○○을 적발하고 4.3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.
- 해당직원은 OA기기 소모품 구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상당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습니다.
- 국무조정실·국무총리비서실은 비위가 밝혀진 해당직원을 신속히 형사고발하는 한편,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조치를 했습니다.
 - 아울러,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도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상응하는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.
- 앞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하에 자체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.